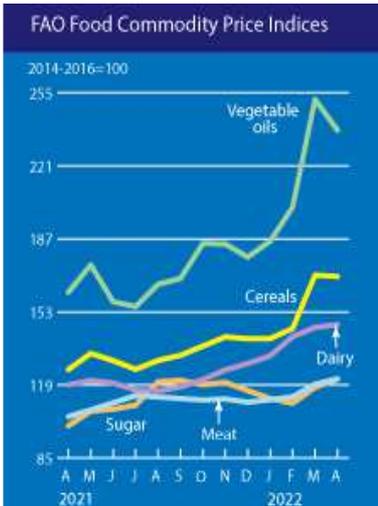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상승세 이어가

- 식품가격지수는 3월 사상 최고치 기록 후 0.8% 하락



지난 4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147.1포인트로 전월대비 0.9% 오르며 8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3.5%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유생산국인 서유럽과 오세아니아의 원유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밑돌면서 세계 원유공급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버터 가격은 현재 해바라기씨유 및 마가린 부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유럽의 공급량 감소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지분유 및 치즈의 수입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내수 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FAO 식품가격지수는 158.5포인트로 전월대비 0.8%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29.8%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설탕 및 육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유지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곡물 가격도 소폭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5월 6일자 >

[마케팅] GDP(글로벌낙농플랫폼), 세계 우유의 날 맞이 기념행사 추진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계 노력 강조...동영상 등 관련 SNS 콘텐츠 홍보 추진



GDP(글로벌낙농플랫폼)가 오는 6월 1일 제22회 세계 우유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2001년 FAO가 지정한 세계 우유의 날은 글로벌 식품인 우유의 가치와 낙농산업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왔다.

금년에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낙농 업계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낙농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Pathways to Dairy Net Zero)'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GDP는 낙농가를 비롯해 낙농업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30-4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세계 우유의 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 하고 해시태그(#WorldMilkDay, #EnjoyDairy)를 활용해 관련 콘텐츠를 홍보해줄 것을 독려했다. < 출처 : GDP, 5월 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